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민생 협력” 한목소리

김 “격주 단위 만나 대화하자”
이 “대선 공동공약추진단 구성”
징용해법 등 현안 거론 안 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동을 하고 민생 분야에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17분가량 이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김 대표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는 마음을 늘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가 (각자)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로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지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는 것은 언제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민생 입법에 머리를 맞대자는데 공감한 뒤 각자 준비해 온 제안을 건넸다.

김 대표는 “그간 우리 당이 비상 체제였다 보니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식사를 해도 좋고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체가 있

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의도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하자”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다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범국가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비상경제회의를 여야 간에 구성해서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해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러진 비공개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계파 불문’ 광폭 내부소통 행보

‘일대일 번개’에 그룹별 접촉
‘리더십 위기’ 정공법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소통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170명 가까운 의원들과 ‘일대일 면담’ 하는 것은 물론 기존 당내 그룹별 접촉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통’이라는 정공법으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타격을 입은 리더십도 곧추세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는 계파를 불문하고 의원들과 맨투맨으로 만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대화해야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정이 빽 때마다 짬짬이 의원회관을 돈다고 한다.

미리 전화를 걸어 시간이 맞으면 해당 의원 방으로 찾아가 일대일 ‘번개 차담’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대표 취임 이후 지속해 온 여러 그룹과 ‘식사 정치’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엔 친문(친문재인) 성향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 이사진들과 만났고, ‘김근태계’ 모임으로 불리는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과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친문계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 다수는 당분간 대표직 사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비명계나 중립시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수습책을 내놓는지 일단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팔’(개혁의 팔)을 향해 고강도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도 내용 타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전날 당사에서 이들과 만나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등 회복 추세에 있다며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는 데도 마치 말바닥인 것처럼 종편 패널들은 이야기한다”며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만 하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도 못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여론 청취 뒤 방향”
대통령실, 연·월 단위 유연화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리 보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의 방향을 유지하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이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에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국회 대리인단 4명 선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맡는다.

김종민·최창호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이에 맞서 이 장관은 김능환·윤용섭 변호사 등 대리인단을 이미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4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 기일을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된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A),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amil.co.kr
● 서울-경기: 동북영양소 (03)5582-4507 ● 북부영양소 (03)9189-3782 ● 남부영양소 (03)2291-6535 ● 관서영양소 (03)2614-2315 ● 안성영양소 (03)2745-4349 ● 광명영양소 (03)3704-8801
● 충청영양소 (042)823-8801 ● 전북영양소 (063)214-5171 ● 전남영양소 (062)241-5001 ● 경북영양소 (053)559-3441 ● 경남영양소 (053)231-6581 ● 광주영양소 (054)751-8331 ● 부산영양소 (051)204-6581